

금세기 최고의 오페라 스타 傳記

미카엘 스코트 지음 「마리아 메네기니 칼라스」

배병삼

경희대 강사·정치학

저자 미카엘 스코트(Michael Scott)는 傳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최근 상재한 「마리아 메네기니 칼라스」(“MARIA MENEGHINI CALLAS”, 312 pp. Boston :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는 체제상 연대기적 기술임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 칼라스에 대한 그간의 부풀어진 신화들, 이를테면 “오페라 매니저들과의 잦은 다툼이라든지 그녀의 결혼과 살빼기 그리고 오나시스와의 로맨스” 등과 같은 솔깃한 이야기거리를 찾는 독자들이라면 이 책에서는 실망하고 말 터이다. 사실 저자 스코트가 그녀의 사적 삶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객관성을 잃지 않은 것이다. 저자가 칼라스에게 흥미를 느끼는 것은 오로지 그녀의 목소리에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이 책의 주제를 구성하고 있다.

칼라스는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잘 불렀으며 이러한 조숙함이 그녀로 하여금 10대 때 데뷔하게 만들었고 또 그 경력으로 서른 살이 되기 전에 이미 세계적 스타가 될 수 있었다. 그녀의 국제적 명성은 근 12년간 철옹성처럼 단단한 것이었지만 1965년 런던에서 공연한 오페라 ‘토스카’를 마지막으로 목소리에 금이 가버렸다. 1973년에서 74년에 이르기까지 그녀만큼이나 목소리를 잃어버린 테너 가수, 쥘 세페 디 스테파노와 함께 세계 공연을 가진 것은 목소리를 잃어버린 가수의 최후를 세계에 전시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1977년 7월 16일 파리에서 53세의 일기로 숨을 거두었다.

물론 이 책 외에도 마리아 칼라스에 대한 각종 회고록과 전기들이 나와 있다. 그 가운데 특히 1981년에 출간된 아리아나 스카시 노폴로스의 「마리아 칼라스」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 그러나 이 책은 칼라스의 초창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더욱이 그녀의 음악보다는 가십과 일화들에 호기려 더 관심을 갖고 씌어진 것이다.

이 책의 저자 미카엘 스코트는 런던 오페라단을 창립한 오페라 전문가이다. 그는 특히 오페라의 레코딩에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서 이런 관심 방향은 칼라스의 음악성을 논하는 그의 관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오페라 가수의 가장력은 극장에서 결판나는 것이지 레코딩판의 소리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현재 칼라스의



1960년대의 마리아 칼라스. 도미치 오페라 하우스에서 아리아 리사이틀을 가진 직후의 모습이다.

음악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보다도 그녀가 남긴 레코드의 음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보인다.

어떤 전기물이 진실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나 회고담에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칼라스에 관한 한 주변인사들의 이야기는 거의 믿을 수 없다. 그녀의 남편이었던 이탈리아 사업가 지오반니 바티스타 메네기니는 칼라스가 자신과 결혼했던 이유는 오로지 돈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1982년 메네기니가 칼라스에 대해 쓴 회고록 「나의 아내 마리아 칼라스」 속에 실린 편지에 의하면 오히려 정반대로 그녀가 남편에 대해 지극했음이 명백하다.

저자는 칼라스에게 베리스모 장법은 맞지 않고 오직 벨칸토 장법이 적격이었다고 굳게 믿고 있다. 한결을 더 나아가자면 그는 1953년에서 54년에 걸쳐 칼라스가 필사적으로 살 빼기에 몰두했던 것이 그녀의 몰락을 초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믿는다.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토스카’가 ‘노르마’보다 목청을 덜 혹사시킨다는 것도 사실이며 또한 눈부신 높은 목청을 탐하는 것을 푸치니는 극구 마다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스코트 스스로가 지적했듯—그러나 간혹 잊어먹고 있는 듯한데, 칼라스의 목소리 역시 레코딩으로서가 아니라 극장에서 평가되어야 할 일이다. 역시 극장에서 생생한 오페라를 애호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랬겠지만 마리아 칼라스가 푸치니의 여주인공을

해석해 내는 기량은 참으로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다. 물론 1964년 영국 런던에서 행한 ‘토스카’ 공연에서 결정적으로 가장력이 내리막길을 걸은 것은 사실일지라도, 저자가 마치 못해 인정하고 있듯 그녀의 묘사력은 기억될 만한 것이었다.

레코드는 가수의 오페라적 기량을 짐작케 해줄 뿐, 그것이 가극장 내의 소리와 감동을 충분히 되살려주지는 않는다. 칼라스 정도의 프리 마돈나에게서는 더욱더 그렇다. 건강상의 이유, 또는 허영심으로 인해 과도한 체중을 빼느라고 그녀가 나쁜 목소리를 갖게 되었다고 하였을 때 그것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가 살을 빼고 나서 보여준 작품 해석은 확실히 그 이전보다 새로운—또는 성숙한 것이었다. 그녀의 초창기 ‘노르마’는 감동적이고, 장중했으며, 기념비적인 것이라 할 만하다.(이걸 누군들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살을 빼고 난 후 보여준 ‘노르마’의 작품해석을 보면 드루이드 목사부인 역은 더욱 인간미가 흘러넘치며, 더욱 연약하며, 나아가 마지막 장면은 더욱 감동적이다.

결국 세상사 그렇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칼라스에 대한 평가 역시 관점에 따라 제각각일 수밖에 없을 터이다. 저자가 어떤 사실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또는 칼라스의 목소리는 이때는 이랬다, 저때는 저랬다라는 ‘사실의 진술’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한다. 그러나 저자가 루시니의 ‘투르코 인 이탈리아’를 레코딩한 칼라스의 목소리에서는 “끌어들이는 힘을 잃

고 있다”든지, 프랑코 제피렐리의 작품을 해석하는 데서는 “발랄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청중도 존재할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칼라스가 말괄량이 피오릴라역을 맡아서 “Che bel turco! Av viciniamci!”(오! 멋진 터키 신사여. 우리 사랑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와 같은 부분을 노래했을 때, 그녀는 청중들로 하여금 히히덕거리는 웃음을 유발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는 저자가 나쁜 점수를 매기기에 서슴치 않는 칼라스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레코드 역시 참다운 유머의 진수를 보여준다는 평가도 너끈하기 때문이다. 칼라스의 삶은 조크가 통하지 않을 듯하지만, 그토록 신산한 삶 속에서도 주위사람을 웃음으로 이끄는 풍도가 그녀에게는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자면 이 책은 결코 읽기 쉬운 책이 아니다. 똑같은 사실이 많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것은 특히 뒷부분에서 심하다. 단어의 선택에서도 현학적인 문투가 많아 읽기에 까다로움을 더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칼라스의 日誌와 리사이틀 프로그램, 그리고 당시의 게스트들을 세세히 기록해 둔 것은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독자들의 이해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 배후 : 헤머의 참모습」

지난 90년 92세의 나이로 죽었던 미국의 사

업가 아만드 해머(Armand Hammer)는 생전 토록 기자들의 추적을 받았던 신화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삶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전혀' 19세기적 로망스와 모험으로 점철된 것이었다. 처음에 그는 미국에서 제약회사를 차려 목돈을 쥘 뒤, 혁명 직후의 러시아로 달려가 레닌과 직접 대면한 최초의 서방 기업가였다. 그리고 50대 후반에는 골동품과 예술품 중개 상으로 一家를 이룬 다음에는 그 돈으로 석유에 투자하여 큰 돈을 움켜쥐었다. 그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던 혁명 직후 소련으로서는 몹시 고마운 기업가였던 셈인데, 이런 인연으로 그후 내내 미국과 러시아의 유명한 정치지도자들 사이에서 다리를 놓았다. 그리고 이러한 행적을 통해 자신이 평화를 위해 진력하는 인물임을 부각시키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그의 밝은 면이라면 그 배후에는 오직 이익과 명망을 탐하는 차갑고 독단적인 모리배로서의 어두운 면도 갖고 있었다. 그는 "돈이야말로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장 영원한 것이며, 그리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라고 솔직한 적이 있다.

그는 생애토록 명망있는 잡지의 주제가 되기를 즐겨했으며 그리고 한때(1987년) 자서전을 집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냉정할 정도로 기

사를 검열할만큼 자기보호에 열중했다. 이미 지 관리를 도맡았던 공보담당 측근, 칼 블루메이(Carl Blumay)가 그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해머의 신화가 어떻게 조작되었으며 그 신화 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폭로한 것이 최근 상재된 「힘의 배후: 해머의 참모습」(『THE DARK SIDE OF POWER, The Real Armand Hammer』, 494 pp. New York: Simon & Schuster)이다.

블루메이는 55년부터 80년에 이르기까지 25년 동안, 부인으로부터 이혼당할 만큼 해머의 집사로서 전력을 다하였다. 그는 "미국의 대중들은 파우스트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사업 응용, 말하자면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혼조차 팔겠다는 각오로 권력과 돈을 갈구하면서, 또한 영화 스타와 같은 명성과 카리스마를 더불어 가진 자본가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자신은 "해머를 팔겠다"고 저술의 동기를 솔직하고 있다.

해머는 언론 기자와 잡지사 기자들을 조종하는 교묘한 재능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기자들의 도움으로 해머는 예술을 옹호하는 자애로운 패턴트의 모습으로, 미국 대통령들과 소련의 공산당 지도자들과 격의없이 사귀는 大人 풍모의 인물로서, 그리고 사업가적 재능

이 탁월한 천재로서 그려질 수 있었다.

「힘의 배후」에서 가장 세세하고 재미난 부분은 해머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그가 법의 칼날을 피했던 일화이다. 해머는 병을 청탁하여 뜨거운 화를 모면하면서 병원에서 소일했는데 비서였던 저자 블루메이가 보기에는 "목소리나 행동이 최상의 컨디션이었다"는 것이다. 최종심에서 약간의 벌금을 무는 것으로 판결이 나자마자 그는 휠체어를 내동댕이치고는 탭댄스를 밟더라는 것. 무엇보다 저자가 해머에게 혀를 내두르는 것은 그의 돈버는 기술에 관한 것인데, 유럽에서 비싸지 않은 그림들을 사서는 이것이 도착할 공항에는 수많은 안전요원들로 하여금 거저 경호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대단히 비싼 그림인양 착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끝내 그것을 高價로 팔아 넘기더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일화들에도 불구하고 블루메이의 이야기는 별로 놀랍지 않다. 그것은 아마 이미 간행된 자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때문으로 보이며, 또한 해머의 동생인 빅토르의 증언에 의존했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사실 빅토르는 그다지 신빙성있는 인물이 아니다. 그는 내내 그의 형이 주변의 사람을 타락시키고 있으며, 미국 대통령과 소련의 서기장을 호주머니에서 주물럭 거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허

풍을 떨고 다닌 지 오래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흥미있는 문제는 남는다. 미국과 소련을 넘나들었던 해머가 충성을 바칠 궁극적 나라는 어디였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 책에 의하면 해머는 어느 나라에도 충성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둘 중 꼭히 고르라고 한다면 그건 소련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소련이 무너지고 KGB의 문서가 공개되었을 때, 거기에는 해머를 미국내 대리인(agent)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뒤에는 모스크바의 비밀 요원은 해머가 미국 공산당 자금책이었다고 전승해왔다고 이 책은 전한다.

그러나 해머가 자신 이외에 누구에게 충성을 했던지는 아무래도 의심스럽다. 그가 소련과 친했던 것은 어떤 재정적, 또는 정치적 목적에서라기 보다는 자신의 우쭐댐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련과 미국 두 나라 역시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데서도 그의 정치적 용도는 거의 없었다고 보아진다. 여하튼 아직 해머의 정체에 대해서는 더욱 더 많은 자료를 통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진다. 해머는 개인적으로는 징그러울 정도의 인물이었는지는 몰라도 그의 집요한 목표의식과 무원칙한 기회주의적 삶은 냉전으로 분할된 세계에서 그 나름의 몫을 해낼 어두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亞細亞文化社圖書館學教材案內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48-24
전화: 279-8161~3, 9266

情報學原論

崔成眞 著 신국판 4,500원

本書는 文獻情報의 諸學理를 體系的·綜合的으로 分析하여 簡明하여 解釋하여 情報學의 領域을 밝히며 그 방법을 상세하게 提示하고 있다.

改正·增補版 도서관학통론

崔成眞 著 신국판 9,000원

本書는 圖書館이 처할 수 있는 社會的·文化的 環境이 圖書館에 기대하는 役割 및 責任과 機能 등에 대해서 圖書館學의 內容과 研究方法를 다루었다.

도서관 정보학개론

유길호·김두홍 外 共譯 신국판 3,500원

本書는 情報學分野의 일부 著書들과는 달리 지나치게 어려운 理論에 집착하지 않아 초심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고, 圖書館·情報學分野를 자연스럽게 接木시키고 있다.

圖書館學教育史

林泰三 著 신국판 4,500원

本書는 圖書館學이 미국의 Melvil Dewey에 의해 처음 開設된 이래 圖書館學 教育의 方向을 설정하고 大學教育과 社會教育에서 歷史的 實態를 파악하고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漸進的·科學的 教育 實態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정보봉사론

최성진·조인숙 共著 신국판 5,000원

本書는 정보봉사와 관련된 것, 즉 정보이용자와 정보요구, 이용자의 정보수집형태, 정보봉사의 종류, 기관, 평가 등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本書는 文獻情報 教育課程에서 情報奉仕의 理論과 技法을 가르치기 위하여 개발된 教材이다.

情報檢索論

司空哲 著 신국판 4,500원

本書는 著者が 情報檢索分野에 오랜 기간 동안 專事하면서 연구한 理論과 實際를 평이하게 解説한 力作이다.

增補 圖書館組織經營論

金世翊 著 신국판 4,000원

本書는 圖書館의 實務的인 입장에서 쓰여진 圖書館組織管理論으로 實務에 專事하는 것을 當然의 課題로 하는 大學이나 圖書館 司書들에게 必須圖書이다.

美國圖書館思想의 究研

小倉親雄 著 朴熙永 譯 6,000원 신국판

本書는 미국의 圖書館思想, 특히 圖書館學과 그 教育에 관한 것 중 9篇을 선택하여 수록하였다. 6篇은 Melvil Dewey에 관한 것이고, 3篇은 그의 思想 및 業績과 깊이 관계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韓國의 官報

—관보의 변천과 특성—
崔貞泰 著 신국판 7,000원

本書는 「구한국관보」, 「조선총독부관보」 등 〈官報〉類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종합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도서관자로 도서관의 유용성뿐 아니라 학문적 시각에서 그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도서관의 인쇄

김세익 著 신국판 5,000원

圖書館은 인류의 歷史的 所產·機能이며, 따라서 圖書館의 歷史는 人類의 歷史라 할 수 있다. 本書는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서 圖書·印刷史와 圖書館史를 강의의 편지와 학생들이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시에 폭넓게 구분하여 서술하였다.